

김태리 “변화에 한계 느껴지면 직업 바꿔야죠”

‘외계+인’서 천둥 쏘는 여자 ‘이안’ 역
첫 본격 액션 “몸 쓰는 데 두려움 없어”
“내게 한계 없어...수많은 김태리 선물”

“제게 한계는 없어요.” 이번엔 ‘천둥 쏘는 여자’다. 때는 고려 말, 도포자락 휘날리며 신검(神劍)이라 불리는 칼을 찾아헤매는 ‘이안’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 여자, 갖고 있는 무기가 칼도 창도 화살도 아니고 무려 총이다. 총과 같은 형태의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최신식 총 말이다. 고려 시대에 웬 총인가.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천둥을 쏘는 여자’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김태리(32)다.

흥미로운 건 이런 캐릭터를 다른 어떤 배우도 아닌 김태리가 연기했다고 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이다. ‘아가씨’(2016)의 속회를 시작으로 ‘1987’(2017)의 연희, ‘미스터 션사인’의 애신, ‘리틀 포레스트’(2018)의 혜원, ‘승리호’의 장선장, 그리고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희도’까지, 매작품 변하는 그의 이미지는 최동훈 감독의 새 영화 ‘외계+인’에서 또 한 번 여지 없이 바뀌어버린다. 18일 김태리를 만났다. 그는 “배우로서 변화에 한계가 느껴지면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거침 없이 말했다.

“무궁무진함에 확신이 있어야죠. 한계를 느끼면 직업을 바꿔야 해요. 한계가 느껴지면 내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 할 거예요. 언제나 도전하면서 깨지고 부딪히고 또 때로는 성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김태리를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어요.”

‘외계+인’에서 김태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액션이다. 물론 그가 액션연기

를 처음하는 건 아니다. ‘미스터 션사인’에서, ‘승리호’에서 보여준 건 그렇다. 다만 이렇게 장르 자체가 액션인 작품에서 땅에서 미끌어지고 하늘을 날오는 연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리는 “몸을 쓰면서 연기하는 게 좋고, 몸을 쓰는 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리는 영화·드라마를 통해 펜싱·사격·승마 등 각종 운동을 배웠고 평소에도 웨이트트레이닝·필라테스·요가 등 운동을 꾸준히 한다. ‘외계+인’ 출연을 앞두고는 액션스쿨에서 각종 액션의 기본을 익혔고, 기계체조를 배우기도 했다.

“최동훈 감독님은 몸을 잘 못 써도 된다면 액션은 표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전 더 멋진 액션을 하고 싶었어요. (웃음) 어떤 장면은 제 자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싶기도 했는데, 감독님은 표정이 완벽했다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액션에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김태리에게 ‘외계+인’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참여한 많은 배우들이 그런 것처럼 그 역시 최동훈 감독 영화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다. 김태리는 최 감독 영화 출연 제안을 받고 어떤 기분이었냐는 물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안 좋아하긴 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달더니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가 이렇게 빨리 와서 정말 좋았다.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를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재미 없으면



안 해요. 게다가 감독님은 장르물을 쓰지만 장르가 최우선이 되게 쓰신 않더라고요. 그의 글에서 최우선인 건 인간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김태리는 쉬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을 “내 삶 자체”라고 답했다. “전 삶을 허투로 살지 않아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살아요.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 망쳐요. 전 뭘 하든지 누구 만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제 에너지입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것,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고 했다. 지금 당장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장르 같은 건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해보고 싶은 연기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진한 멜로. “아주 진한 거요. 풋풋한 거 말고, 진짜 진한 거요. 지금은 잘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 해보고 싶어요.”



효린 “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름’”...미니앨범 ‘아이스’

가수 효린이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스’로 약 2년 만에 컴백했다.

효린은 18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가지며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날이다. 홀로서기 이후로 첫 쇼케이스다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효린은 이날 자신이 아끼는 수록곡 ‘오버유’ 무대로 쇼케이스를 열었다.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스’는 그동안 꾸준한 음악적 성장을 보여준 효린이 직접 프로듀싱을 맡은 전곡의 작사, 작곡에도 참여했다. 타이틀곡 ‘노 땡스’(NO THANKS)는 힙합과 알앤비가 믹스 매치된 댄스곡으로 리드미컬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에 효린은 “노 땡스”를 작업하면서 주변에 모니터링을 부탁했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팬들이 듣고 ‘언니 이런 장르도 잘 어울리네요’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땡스’를 필두로 단독 작사에 참여한 ‘아예(Ah yeah)’는 물론 Mnet ‘퀸덤2’의 파이널 경연곡이자 래퍼 이영지와 함께한 ‘와카 붐(Waka Boom)’과 지난 1월 12일 발매한 ‘레인로우(Layin’ Low)’, 그리고 ‘보디 토크(Body Talk)’, ‘아예(Ah yeah)’까지 총 6 트랙이 담겼다.

효린은 이번 앨범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퀸덤2” 프로그램이 끝나고 여름에 인사드리고 싶어 오랫동안 고민했다. 정말 감사한 수식어지만 ‘서머퀸’에 너무 치중되지 않고 편안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다”며 “여름에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던 ‘얼음’을 떠올렸고 나와도 닮았던 생각이 들었다. 얼음이 단단하다가도 금세 녹지 않나. 단단한 상태가 무대 위의 쿨한 나라면 녹는 상태는 무대 아래의 나와 닮았다 생각해 ‘아이스’로 앨범명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아티스트이자 명실상부 ‘서머퀸’ 효린이지만 그 무게감이 결코 가벼울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서머퀸’ 수석어에 대해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룹 활동을 할 때 받았던 사랑에 누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냥 편안하고 효린만이 들려줄 수 있는 여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한 없다며 “그냥 제 노래를 들으실 때만이라도 근심, 걱정을 잊고 잠시나마 털어버리셨으면 한다.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위로도 얻으시길 바란다. 저는 제가 행복할 것보다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더 행복하게 생각한다”며 대중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바랐다.

끝으로 “다음 스텝은 콘서트를 준비해서 인사를 드릴까 한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다양한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다. ‘퀸덤2’를 통해 많이 성장했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힘을 길렀다.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는 만큼 한 가수의 공연이 아닌 마치 여러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듯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예고해 기대감을 더했다.

2010년 걸그룹 ‘씨스타’로 데뷔한 효린은 뛰어난 가창력과 대중적인 음악성으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해체한 뒤에도 활발한 솔로 활동을 이어 갔으며 최근에는 Mnet 컴백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2’에서 1, 2차 경연 연속 만점을 받는 등 다시 한 번 크게 주목 받았다. 아티스트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효린은 유니크한 음악에 자신만의 색을 열심히 채워나가며 ‘올라온드 아티스트’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하다.

효린의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스’는 이날 오후 6시에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8시에는 네이버 NOW를 통해 팬들과 만나는 ‘효린 컴백 쇼 아이스(HYOLYN Comeback Show)’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이호섭 “故 송해 빈자리 누 되지 않도록 다짐...”

‘전국노래자랑’ MC 책임감

방송인 이호섭·임수민이 ‘전국노래자랑’ MC에 대한 책임감과 故 송해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전국노래자랑’ MC 이호섭, 임수민, 정한욱 작가가 출연했다.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야외 녹화를 시작 7월 10일에 전라남도 영광군 편, 17일에는 경기도 양주시 편을 공개했다.

이날 야외 녹화 현장을 처음 나갔다는 임수민은 “녹화 앞두고 잠이 안 오더라. 2년 6개월 만에 나가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쩌하나. 송해 선생님이 안 계시고 괜찮을까 걱정 많이 했다. 그런데 멋진 석을 가득 채워주셨다”고 말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3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는 정한욱은 “송해 선생님과 MC와 작가 그 이상의 사이”라며 식구같이 가깝게 지냈다고 떠올렸다.

이어 송해의 뒤를 잇게 된 이호섭은 “송해 선생님이 일궈놓은 업적이 워낙 찬란하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송해의 영향으로 운전면허를 포기했다며 “송해 선생님 모셔 보니까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신다. 송해 선생님의 건강 비법이라 생각하고 이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수민은 “대형 버스에 제작진들이 타는데, 송해 선생님이 늘 앉으시는 자리에 FD가 선생님 캐리커처를 붙여놨더라”며 여전히 故 송해와 녹화장을 함께 가고 있다며 그리움을 전했다.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10분에 방송된다.

유희열, 13년 만에 ‘스케치북’ 하차...“표절 동의, 어려워”



JTBC ‘뉴페스타’ 출연도 마무리

이와 함께 유희열은 출연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인 JTBC ‘뉴페스타’에서도 하차한다. 역시 이번 주중 녹화분인 내달 9일 방송되는 10회까지만 나온다.

유희열은 “우선 긴 시간 동안 저와 관련한 논란으로 피로감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저의 방송 활동에 대한 결정은 합계하고 있는 제작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 만큼 늦어진 점 너그러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유희열은 최근 불거진 표절 시비와 관련 “그동안 쏟아졌던 수많은 상황을 보며 제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됐다”면서 “지난 시간을 부정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다만 “저는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저의 남은 뒤편이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며 외면하지 않겠다. 음악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희열은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게 됐다면서 사과했다.

다만 사카모토 류이치는 같은 달 안테나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입장문에서 “두 곡의 유사성은 있지만, 제 작품 ‘아쿠아(Aqua)’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나의 악곡에 대한 그 큰 존중심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희열은 사카모토 류이치를 표절했다는 의혹에서 일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에선 유희열의 다른 곡들이 일부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다만 한편에선 코드 진행 일부가 겹친다는 이유로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블랙핑크 제니, 첫 연기 도전에 “매우 설렌다”...‘디 아이돌’

YG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배역”...방영일은 미정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미국 HBO의 새 드라마 시리즈 ‘디 아이돌’(연출 샘 레빈슨)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는 소감을 전했다.

제니는 1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 꼭 함께 하고 싶었다. 매우 설렌다. 열심히 할테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디 아이돌”은 캐나다 출신 팝 슈퍼스타 위켄드(The Weeknd·아벨 테스피에)가 제작하고

HBO ‘유포리아’의 샘 레빈슨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떠오르는 팝 아이돌을 둘러싼 관계들과 음악 산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HBO는 ‘왕좌의 게임’을 비롯해 ‘체르노빌’ 등 다수의 인기작을 탄생시켰다. ‘디 아이돌’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제니와 위켄드를 비롯 미국과 프랑스 동시 국적의 배우 겸 모델 릴리 로즈 템, 미국 팝스타 트로이 시반 등이 출연한다.

YG는 “제니의 배역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그럼에도 블랙핑크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



트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증명해 온 그의 첫 연기 도전이기에 글로벌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디 아이돌”의 방영일은 아직 미정이다.